

# 녹우당·미황사서 만난 전시회...몸도 마음도 힐링



녹우당 '해남 자화상'전에 참여하는 김우성 작가는 매일 전시장에서 그림을 그린다.

## '풍류남도 아트 프로젝트' 따라 해남 예술여행

공룡박물관서 만난 짜질한 태권 V 추억이 새록 새록  
행촌미술관 수목화첩전, 해남 스케치 300점 비교 재미  
망골 7미술관 등 관광명소서 5개 전시회 동시 진행중

'길'을 따라 쪽 이어지는 전시는 흥미로웠다. 공룡 박물관, 녹우당, 미황사 등 해남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에서 만난 전시는 공간의 매력까지 더해져 즐거움이 두배였다. 행촌문화재단이 전남도, 해남군과년부터 진행중인 '2017 풍류남도 아트 프로젝트-예술이 꽃피는 해안선'은 근사한 예술여행이다. 특히 7~8월에는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해남 관광, 예술을 만나다'를 주제로 다섯개의 전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관광과 예술이 결합한 일정을 짤 수 있다.

15일 아트 프로젝트를 따라 해남 나들이에 나섰다. 출발은 공룡박물관이 발견된 우황리에 문을 연 공룡 박물관. 화려한 연꽃이 활짝 피어있는 야외 정원을 지나 전시관에 도착하면 건물을 뚫고 나오는 거대한 공룡 모형이 발길을 붙잡는다.

이곳에서 열리는 전시는 익살과 해학이 넘치는 성태진 작가의 'FRIENDS 태권 V와 영웅친구들전'(8월30일까지)이다. 작품 소재는 1976년에 탄생한 '로봇 태권 V'다. 화려한 오방색의 채색 목판화로 만나는 '로봇 태권 V'는 세월을 지나면서 짜질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다.

'국보시리즈'로 명명한 '수학여행' 연작은 태권 V가 워터우먼, 슈퍼맨, 배트맨과 여행을 떠나 찍은 기념사진의 모습들이다. 에펠탑 등 해외 명물 대신, 불국사, 남대문, 다보탑 등 우리 문화재가 자리하고 있다.

작품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익숙한 글귀를 만날 수 있다. '언젠가 가겠지 푸르른'으로 시작되는 산울림의 '춘춘', '슬픈 인연' 등 대중가요 가사로,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절로 흥얼거리게 된다. 또 장소에 맞게 공룡을 테마로 한 작품들이 눈에 띄며 전시실에서 내다보이는 바깥 풍경은 아름답다.

차를 몰아 찾아가면 숨겨진 망골조각공원에 자리한 '망골 7미술관'이다. 사구미술수육장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선 지난해 해남 이마도작업실에 머물렀던 안해경 작가의 '해남 붉은 땅 고마운 호박전'(9월30일까지)이 열리고 있다. 모든 작품은 해남 특산

물인 늙은 호박이 주인공으로 빛에 따라 변화하는 화려한 색깔의 호박이 인상적이다.

"해남 아이들과 꿈다락문화학교를 진행할 때 호박을 심으며 퍼포먼스 하듯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어요. 해남을 떠나 있다 다시 돌아왔을 때 누구도 돌보지 않은 풀숲에서 호박이 자라고 있는 걸 보며 호박에 대한 고귀함, 고마움을 느꼈죠."

안 작가는 "해남에 머물며 내 자신과 작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됐다"며 "전시장이 단순히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넘어 음식도 해 먹고, 이야기 나누는 사랑방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작가는 오는 8월 15일까지 전시장에 딸린 숙소에서 머물며 해남에서 나는 음식으로 간단한 먹을거리를 나누고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안식당'을 연다.

이어지는 발길은 미황사다. 자하루 미술관에서 만난 조병연 작가의 '천불'은 압도적이었다. 한쪽 벽(가로 8m·세로 5m)을 가득 채운 100개의 돌부처 조각은 모두 다른 모습이다. 조 작가는 8개월간 해남에서 수집한 돌을 전혀 가공하지 않고 각각의 모양에 따라 부처를 그렸다. 좌불, 와불, 얼굴이 찌그러지고 귀가 없는 부처, 고뇌에 찬 부처 등 인간사 희로애락을 상징하는 듯한 100개의 돌부처는 보는 이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녹우당 충현각에선 '해남 자화상-김우성 신재돈 전'(8월30일까지)이 열리고 있다. 녹우당 하면 떠오르는 게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이니 이곳에서 열리는 '해남 자화상전'은 재미있는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남공룡박물관에서 열리는 'FRIENDS 태권 V와 영웅친구들전'.

한국과 호주로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신재돈 작가는 거북선 표정마차 아줌마 등 그가 해남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화폭에 담았다.

김우성 작가는 오랫동안 '사람'에 주목했다. 대작 '순회진료'에 등장하는 수십명의 표정 하나하나가 생동감이 넘친다. 작은 구두방을 찾은 손녀딸의 재롱에 웃을 짓는 할아버지 모습이 인상적인 '할아버지의 볼 사람', 작가가 즐겨가는 대형탕에서 만난 노인들을 담은 작품도 생생히 살아있고 모두 우리 주변의 '누군가'이기에 오래 발길을 머문다.

김작가는 매일 오후 3시~5시 전시장에서 '비오는 날' 작품을 그리며 관람객도 직접 붓을 들고 참여할 수 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날 것만같은 작은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에 튀김과 떡볶이를 먹는 이들의 환한 표정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김 작가는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사회상과 시대상까지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게 인물화"라며 "전시장을 찾는 이들이 직접 그림 그리며 모습을 보며 흥미로워하고 한다"고 말했다.

충현각 바로 아래 위치한 고산유선도 유물전시관에서 '형형한 눈빛'으로 당신을 쳐다보는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고 나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마무리는 해남종합병원 1층 행촌미술관에서 열리는 '예술이 꽃피는 해안선 수목화첩'전이다. 전남도가 주최하는 전남수목화페스티벌과 연동해 수목작가들이 미황사, 녹우당 등 해남을 답사하고 스케치한 작품 300여점이 전시돼 있다. 똑같은 풍경이지만 각자 다르게 해석해낸 작품들은 흥미롭다. 바로 옆에는 북카페가 있어 시원한 냉커피로 목 축이기 좋다.

이번 전시는 해남의 유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망골 7미술관은 오랫동안 쓰인새를 찾지 못했고 2010년까지 유물전시관으로 사용됐던 충현각 역시 고산유물전시관이 새로 생기면서 비어 있을 때가 많았다.

해남을 떠나면서, 다시 해남으로의 여행을 기억한다. 그 중에서도 미황사는 일순위다. 문의 010-3052-5870. /해남=클·사진 김미은기자 mekim@

## 독립영화 '선택' 배우 공개 오디션 31일까지 신청 접수

독립영화 '선택'에 출연할 배우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 오디션이 열린다. 광주여성영화제의 '관객이야기 공모전'을 통해 당선작으로 선정된 영화인 '선택'은 현재 촬영준비에 들어갔으며 11월에 상영될 예정이다. 영화는 20대 후반의 여성이 주인공으로 비정규직 노동의 현실을 보여준다.

레스토랑 매니저로 일하는 정연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부당한 정계로 일을 쉬던 중 가족 모임에 참석한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아직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한 정연에게 결혼에 대한 압박 등 과도한 관심을 쏟아낸다. 부담스러운 가족모임이 이어지던 중 아직 휴직 사실을 모르는 가족에게서 정연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게 되는데...

오디션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cutesuperman@hanmail.net으로 프로필을 보내면 된다. 공개오디션은 8월 5일 오후 2시 광주시청지다미디어센터 2층 스튜디오 열린다. 문의 010-6402-0523. /전문기자 e16621@

## '미디어아트와 공공미술' 광주문화재단 심포지엄 26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6일 오후 3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미디어아트와 공공미술'이란 주제로 공공미술 관계자, 기획자, 미디어아티스트, 건축학자 등이 함께 모여 '미디어아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미디어아트, 공공미술로서의 목소리 ▲사회와 함께 하는 미디어아트 ▲공공미술 설치에서 시민의 참여 등 3개 세부 주제로 진행된다. 주제발제자로 백 곤서울시 공공미술 큐레이터, 이현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유우상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가 나서고, 토론자로 이순미 미가는 건축사 대표, 진시영 미디어 아티스트, 2017 광주미디어 아트페스티벌 상용예 예술감독이 참여한다.

심포지엄에는 공공미술 관계자, 기획자, 공공미술과 미디어아트에 관심 있는 학생 및 일반시민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24일까지 전화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70-74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